

겨울 되면 소리 없이 기부 받은 만큼 되갚는 경영철학

(주)삼원FA “마음 같아선 지갑을 더 열고 싶었는데 회사 형편이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마다 문현2동 주민센터를 찾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주)삼원FA가 올해도 성금을 쾌척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0만원 전달했다.

“남들한테 알릴만한 일이 아니라”며 인터뷰를 꺼리던 홍원표 (62) 대표는 “자수성가한 기업가로서 기업이움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기업 규모에 비해 성금이 외려 약소하다”며 겸연쩍어 했다.

문현2동에 본사를 둔 자동차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삼원FA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명목으로 동주민센터에 내놓은 돈은 10여 년간 무려 2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 문현여중 등 인근 학교와 복지시설에 알게 모르게 내놓은 출연금도 상당하다. 불황으로 모두가 움츠리는 시기에 향토기업으로 결코 쉽지 않고 적지 않은 금액이다.

홍 대표는 “합격계 기업을 일구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에는 나 혼자 잘해 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기에 작은 보은에 불과하다”며 성금의 의미를 애써 감추려 했다.

1979년 직원 3명을 데리고 전자회로 기판을 만들며 창업한 한 홍대표는 1988년 지금의 문현2동으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왔다. 산업용 자동차어의 핵심장치인 PLC(전력자동통신)와 관련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보급했다. 90년대 들어 스마트폰즈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자동결제기(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와 자동발매기시스템 등은 모두 삼원FA가 개발, 보급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계 선두주자로 본



삼원FA 홍원표 대표

올해도 3,000만원 쾌척

올 봄 해운대로 사옥 이전키로

“몸 떠나도 남구와 인연 계속”

사를 서울로 옮길 유혹도 있었지만 홍 대표는 남구에 머물렀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상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애항심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저희 같은 IT업종이 서울로 갔으면 지금 보다 외형이 서너배는 더 컸겠을 겁니다.”

서른 해 가까이 남구를 지킨 삼원FA는 하지만 올봄에 본사와 공장 모두를 해운대구 석대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그간 제조 공장이 사상구 감전동과 덕포동에 분산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불가피한 결정이다. 남구에 정이 많이 들어 공장을 지을 입지를 찾아봤지만 남구에는 더는 공장을 세울 땅이 없었다고 한다.

홍 대표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본사 건물과 일부 계열사는 계속 문현동에 남아 있어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세방(주)

세방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남구의 대표기업인 세방(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기업이다. 해마다 가정의 달 5월, 한가위 명절 그리고 겨울이면 어김없이 구경을 찾아 생필품을 한아름 풀어놓는다. 지난 연말에도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쌀 720kg을 구경에 기탁했다. 세방(주)는 사회복지법인인 세방이의순재단을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억 5,700여만원을 남구청에 전달했다. 같은 기간 이의순재단은 28억 7,0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국의 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에 지원했고 지원 규모를 매년 늘리고 있다.

나다른 지역공헌과 남구에 대한 깊은 애착은 세방그룹의 역사와 이의순(92)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짚어보면 이해가 빠르다. 전남 여수 출신인 이 명예회장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60년 부산으로 건너와 지게차 한 대를 가지고 물류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965년 종합물류기업인 지금의 세방(주)를 설립했다. 이후 40여년만에 13개 계열사를 거느린 연매출 1조6,000억원의 중견그룹으로 급성장시켰다. 그룹의 모태인 세방(주)는 우암, 감만, 용당부두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 항만하역을 주업종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2014년도 매출 57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올렸다. 세방(주) 신우철 부산지역본부장은 “일반인들에게 택배나 고속버스 등으로 한진과 대한 통운에 가렸지만 트레일러 같은 특수운송 분야에선 세방(주)이 국내 1위 업체”라고 자부했다.

술한 역경을 딛고 맨손으로 그룹을 일군 이 명예회장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사재 90억원을 출연해 복지법인인 세방이의순재단을 설립했다. 이 때문에



세방그룹 이의순 명예회장

세방이의순재단 통해

6년간 2억5,700만원 성금 기탁

올초 베품시장 수익금 전달 예정

세방그룹은 언론에 기업소식 보다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더 많이 거론되는 대표적 사회공헌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의순재단을 통한 기부활동 외에 세방(주)는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 기업이윤 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5년째 그룹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연말 베품시장이다. 직원이 자신의 물건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수익금이 생기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원 플러스 원’ 형태의 성금 적립캠페인이다. 한 해 베품시장을 통해 약 1억 정도가 모이고 이를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 승진이나 인사 때 화환 대신 쌀을 받아 기탁하기도 한다. 20년째 남구에 살고 있는 신 본부장은 “이날 말 베품시장으로 모인 기금을 생활이 어려운 우암·감만·용당 주민들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김정화 명예기자

신춘문에 평론 당선

박영근 전 남구의회 의장

문학광장 수필부문 신인상

20년 습작시 묶은 젊은날의 단상

이문영 시인 첫 시집 ‘나 살다간 밤의 놀이타’ 출간

부산남구문화원 이문영 사무국장이 20년간 틈틈이 쓴 자작시를 묶어 첫 시집 ‘나 살다간 밤의 놀이타’를 출간했다. 부산산인협회와 부산작가회의 회원이자 시작업이후 동인으로 오랫동안 문단에서 활동한 그가 이제야 시집을 냈다는 게 조금 의아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묵혀둔 농익은 시어와 잠재된 장의가 유연하면서 섬세하게 자택질을 한다.

시인은 습작노트 속에 잠들었던 시들을 엄선해 105편을 추렸다. 10편의 연작시인 ‘고흐는 고흐를 왜 살해했을까’나 하이쿠 마냥 13자로 짧게 매달지는 시도 눈에 띈다. 시인 스스로 “내 시는 엉망이었던 청춘의 기록”이라 고백하듯 시집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음울하고 편이 맞지 않는 카메



이다.

20대 시절부터 시집을 내고 싶었다는 시인은 시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젊은 시절 어느 골방에서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며 당시 심취했던 많은 관념들과 작별을 고하는 조사(弔辭) 같은 심정으로 첫 시집을 출간했다고 응수한다.

본지 명예기자

이자 ‘수필문학’의 편집장인 김정화 작가가 광남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박병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분석한 ‘나마스테, 탈식민주의적 경계 허물기’라는 평론으로 오늘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형상화한 작품 선정과 분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견해를 펼쳤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2006년 ‘수필과 비평’지로 등단해 제3회 전강문학상, 19회 부산문학상 등을 받은 작가는 수필집 ‘세에게는 길이 없다’ ‘하얀 낙타’를 발간했다. 2011년 ‘젊은수필’, 2012년과 2013년에 ‘한국의 좋은 수필’로 선정됐다.



박영근 전 남구의회 의장이 문학광장 50회 신인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했다. 박 전 의장은 수필 ‘나의 어머니’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친 모친을 통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이 땅의 여인들의 힘들고 아픈 역사를 투영했다. “어머니에 대한 일대기인 행장(行狀)을 짧은 글에 잘 담아내 시대의 아픈 단면들이 곳곳에 들어나고 있다”는 심사평을 얻었다. “늦깎이로 신인상에 처음 도전했는데 상을 받아 조금 열렬했다”는 박 전 의장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삶을 반추하면서 소재를 찾고, 찬찬히 글을 다듬어나가는 글쓰기 공부를 계속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구 2014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

남구에서 오랜 세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201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14명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녹조근조훈장

안수갑 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난 1974년 7월에 임용돼 39년 5개월이라는 긴 공직 생활을 거쳤다. 특히 2008년 1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감만2동장, 대연1동장, 우암2동장, 문현3동장을 연이어 맡으면서 현장위주의 확인행정과 예방행정을 펼쳐 행정서비스를 한차원 높였다.

채수만 전 대연4동장은 2005년 청소행정과 재할용담당 시절 그린클린(Green Clean) 자치봉사를 구성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대연4동장 때 결혼이주여성의 행복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상이 적응에 많은 지원을 했다.

옥조근정훈장

권재영 전 여권담당은 2011년 민원여권과 여권담당 재직 당시 아간 여권민원 창구 운영, 단체여권 현장서비스 운영 활성화 등에 앞장서 민원관의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김광삼 전 장애인담당은 청장년층 일자리사업 개발, 채용박람회,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 확대에 기여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자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 생활 중 반상화운영 및 국토해양 발전에 공을 인정받아 두차례 장관상을 받았다.

구의규 전 보상담당은 2009년 자전기 이용 활성화 동영상을 만드는 등 관내 자전기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과 자전기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정기 순찰과 단속을 통해 건축질서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맹중 주무관은 34년 공직생활 줄곧 사친홍보 업무를 맡아왔다. 휴일도 없이 30여년 남구의 행정과 주민의 일상을 사진 기록으로 남겼고 매년 수 백 건의 사진자료를 언론 매체에 전송해 남구 홍보에 앞장섰다.

근정포장

박성태 전 재산관리담당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위, 서민생활보조 및 복지증진, 청사 에너지 절감에 많은 열정을 기울였다. 또 구청 민원실 내 ‘오복도 휴(休) 카페’를 열어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

김경희 전 건강증진담당은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금연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구강보건, 암관리, 외국인유학생 건강관리 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김유상 주무관은 주요 사업 및 시책 추진에 있어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특히 건축과 근무 시절 무허가 단속업무를 하면서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펼쳐 관내 건축 질서 정착에 공헌했다.

총리표창

정연하 주무관은 10년 넘게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쾌적한 주차정책 추진 및 공정한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장관표창

김판석 주무관은 남구의회,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과 등을 근무하면서 동료의 귀감이 되었으며 안전도시와 근무 시절 하수구 준설 등 재해예방에 노력을 쏟았다.

시장표창

정소과 권덕윤, 김용길, 이종래 씨는 20년 가까이 남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청소와 하천, 공한지 생활환경 취약지 등 관내 불결지 청소를 성실히 수행했고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등 동료와 이웃의 귀감이 돼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안수갑
전 시설관리사업소장채수만
전 대연4동장권재영
전 여권담당김광삼
전 장애인담당구의규
전 보상담당김맹중
주무관박성태
전 재산관리담당김경희
전 건강증진담당김유상
주무관정연하
주무관김판석
주무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세 10%경감
(연납시 총 19%할인효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경감

○문의처 : 남구청 교통행정과
(607-4555), 동 주민센터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개요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014. 12. 31.)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조사연혁 : 1994년 제1회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조사하며, 2014년 기준 조사는 제22회 조사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20204호)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14. 12. 31. 현재
- 조사기간 : 2015. 2. 4. ~ 3. 11.
※ 남구 지역내에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457개 사업체

■주요내용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 지역소득추계(GRDP 등) 기초 자료,

■조사원이 조사를 위하여 방문을 하면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조직법무담당 ☎051-607-4031~7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5.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 2015. 1. 16. ~ 2. 2.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정), 지방세납부계좌이체 등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사이버지방세정)

○납부시간 : 07:00 ~ 22:00(365일 연중무휴)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납부기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500원 마일리지 제공 됩니다

• ARS 지방세납부 :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통합납부 : 1544-1414(유료)

• 스마트폰납부 :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ストップ

【문의처】

세무 2과 등록면허세 ☎051-607-4941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자동이체 납부 시행

남구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자들의 금융기관 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이용신청

○신청대상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신청방법 : 주거지전용주차장 소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혜택 : 요금 감면(매월 건당 150원)
○문의처 : 교통행정과 및 각 동 주민센터

□ 서비스 개시

○시기 : 2015. 1월
○서비스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자동이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자동이체 예정 문자메시지 전송
▷이체결과 결과 및 미납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2015년 1월부터 납부가 쉬워집니다

• 납부고지서,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전국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etax.busan.go.kr

【문 의】 세무2과 ☎607-4944

※접수처 : 남구생활체육회 ☎644-7330, 612-7330, 622-7330, 607-6389